



안녕하세요? 저는 백승은수녀입니다. 저는 2006년에 입회하였고 2010년첫서원, 2017년에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피정사도직, 본당 사도직, 전례사도직을 했으며 현재는 서울 씨튼영성센터에서 젊은이 사도직과 피정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더씨튼 말씀은 "기쁘게 살기 위해 사랑해야하고 사랑하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입니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고 자연을 즐기고 사람을 좋아하며 늘 그 안에서 기쁘게 살고자 하셨던 마더씨튼의 삶을 닮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도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쁘게 지낼때가 가장 좋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수도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본당사도직과 피정 사도직을 할 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다른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동생과 함께 마더씨튼의 딸인 것입니다. 동생 백지혜 수녀는 저와 한해 차이로 입회하여 지.청원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느님 다음으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수도자로 불러주시고 성장시키며 마더씨튼 딸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ello! I'm Sister Baek Seung Eu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2006. I professed my first vows in 2010, and made perpetual profession in 2017. I have ministered in retreat ministry, pastoral ministry, and liturgical ministry for the community. Currently my ministry is focused on young adults and retreats at Seton Spirituality Center in Seoul.



My favorite quote from Mother Seton's words is, "To enjoy, we must love; to love, we must sacrifice." I have a desire to imitate her life. She sought God in her daily life, found joy in nature, loved people, and consistently lived cheerfully.



The happiest moments in my religious life are when I am with Sisters in the community, caring for each other, praying together and enjoying ourselves. In this era where the concept of community is breaking down, I believe that building and living a healthy religious community is a way that we bear witness to the kingdom of God.

I loved meeting and working with various people in the ministries. Especially during the pastoral ministry and retreat ministry, I actively engaged with people of different ages, listened carefully to their concerns, and shared many gifts from God with them. It was a time that I found rewarding and felt fulfilled.



I have received a special gift from God in my religious life; my blood sister, Sister Baek Ji Hye, is also a daughter of Mother Seton. She entered the community one year after me. We spent one year of initial formation together when I was a postulant and she was a live-in affiliate. We have become each other's biggest support, after God, relying

on each other. I am grateful to God for calling me as a Sister of Charity, making me grow, and allowing me to live as a daughter of Mother Seton. I continue to proclaim the Gospel to the world and strive to live my life with love and gratitude for others.

